朝鮮日報
朝刊
本紙朝夕刊十二面

社說 英米佛의 對日經濟制裁說

一

昨年十二月三十日 米國政府가 그三十日大使를 通하야 對日回答文을 送達하야 帝國政府의 對支事變處理方針에 同意할수 업는 뜻을 表示하며 九個國條約의 有効를 强調한뒤를 이어 英政府는 지난十四日에 크레기大使로、佛政府는 十九日에 앙리大使를 各各 通하야 米國과 同一趣旨의 對日通牒을 送達하야 現存諸條約에 基因한 在支權利一切를 保留한다는 뜻을 表明해오든事實은 周知하는바어니와 情報에 依하면 英政府는 對日通牒反響에따라서는 自力으로써 在支權益을 擁護할바 계어다하야 對日報復方策을 硏究中이며 米政府에서도 對日經濟制裁策을 相當히 具體的으로 考慮中이고 佛政府도 英米에追隨할模樣이라고한다.

二

그러면 果然英米佛三國은 對日經濟制裁를 斷行할것인가? 그들의 通牒送達과및 經濟制裁斷行傳은 一種의對日 恫喝에 不過한 步調를 取하야 恫喝政策에 汲汲하야 三國이互相協議하고 同一한 焦慮한 나머지 權益擁護策에 國의確乎한 新東亞秩序建設意圖 으로서 皇軍의徹底的勝利와 帝 는 窮餘之策에 不過하다고 볼것 써 그들의權益을 擁護하여보려 이다 對日報復案內容으로서 傳하는 英國의對蔣積極的援助、日本商品에對한 報復關稅乃至 最惡國待遇停止等과 米國의 軍需品輸出禁止 屑鐵銑鐵輸出禁止 日支事變中 對日通商禁止案等은 有田外相이 議會에서 答辯한바와가티 實行當하는 國家보다도 이를實行하는國家에 더욱損害가 만흘것인즉아모리英米의 協調가 잘된다 하더라도 卽時이를 斷行할것으로는 보이지안는다 假使그들이或種의 制裁를 行하다 하더라도帝國의 確乎한 方針에는 秋毫도變更이업슬것으로 오히려 自己들의 在支權益을 自己들이 抛棄하는 逆結果를 매질것은 明若觀火한일이다.

三

帝國의 東亞新秩序根本方針은 累次聲明한바와가티 支那에잇는 第三國의 權益을 全的으로 無視하려는 것이아니라 日滿支三國結合에 依한 新秩序 建設에 支障이업는 範圍로 第三國의權益을 尊重할뜻을 表明한것인즉 英米佛이 東亞의 新事態만 正當히 認識하여 온다면 그들의 權益은 自然히 擁護될것으로英米의 不安焦燥는 結局事變에對한 認識不足에 잇는것이다 然則 帝國은 誠心誠意로써 從來와가티 그들에게 我方의 眞意를 理解시켜 新東亞建設에 協力케하기에 努力할것으로 그리함에도 理解치못하고 또는 理解하면서도 利己的 打算政策으로부터 經濟制裁와가튼態度를取하야 中立的地位를 逸脫할境遇에는 事態는 더욱事變解決을遲延케하게될것인즉 斷乎그들에對抗하야 權益尊重方針을 一擲하는同時에 確乎不動하는 態度로써事變收拾의 根本國是에 따라 一路邁進할것이다 이미嚴新을仰하야 對支事變處理根本方針을決定하엿스즉 一直線으로 그方針에따라 邁進할것으로 第三國의 異議其他認理解의 態度에 左顧右眄할必要가 업슬것이다 그러나 될수잇는限 反對的立場에잇는國家라도이를自己便으로 誘引하야 그와協力함이 外交의使命인즉 外交當局은 一層 英米佛의 理解를促進시키기에 努力하여야할것이다.

衆望을 一身에지고 吳將軍遂出馬決意

近近重要地位에推戴豫定

吳佩孚氏

【北京廿六日發同盟】現下 國內事態에對處하야 急速히和平救國을 實現할 有力한元老의 蹶起를 要望하는 民衆은 中國元老의 第一人者로서 全國民間에 聲望이 높은 吳佩孚將軍의 出馬를 促하는 熱烈한 通電을發하게되어 連日 各地의 朝野有力者、軍隊、學生團體、公會等으로부터 同將軍에게 通電이 몰려오는바 要望을밧은 吳佩孚氏는 이熱烈한 朝野一致의 要請을 저바릴수업서 드디어 國家大難에 當코저 出馬를 決意하게되엿다 卽 吳將軍은 二十六日에 오래동안의 沈默을 깨트리고 熱心이고 또有力한 出馬要請者인 江元鍟、江朝宗、鄧邦氏等에 對하야 各各復電을 發하고 待望의 第一聲을 發하야 蹶起의 決意를 天下에 闡明하엿다 이로써 吳佩孚氏는 近近 和平救國、治安確立의 重大役割을 演할 重要地位에 推戴되기로 거의確定되엿다

新國共合作機關으로 統制委員會設置

【香港二十六日發同盟】重慶來電에依하면 二十四日 五中全會本會議를 通過한 新國共合作의特殊機關은 中央擴大戰地統制委員會라 命名할것과 그組織大綱까지는 이미 決定되엿다한다 主任委員은 蔣介石으로하고 人的構成은 大體國民黨五 共產黨三 其他 抗日諸派第三黨國社黨으로부터 二派 國家主義靑年黨等으로부터二名式 參加할것으로된다 右統制委員會가 特히 共同의文字를 刷한것은 國共兩黨의 責任觀念을 排하고 國民黨이 依然히 抗戰 主權을掌握한것을 表示하는것이다고 解釋된다

吳佩孚氏出馬로 組織的和平運動展開乎

【北京二十六日發同盟】全國民衆의 元老出馬要請에 對하야 別項과가티 吳佩孚氏가 蹶起할意向을 表明하엿는바 이와併行하야 和平運動의 母體가 될團體를組織하려고 그準備를着着進行시키고잇다 吳佩孚氏以下各名士에對한 出馬要請은 旣報와가티 全國各民團體로부터 通電한것인바이는 單只民衆의 輿論일뿐만 아니라 北京의 江朝宗、上海의 江亢虎、鍟其他 有力者及 臨時、維新兩政府의 要求에 依하야이를 具體化하고저 民衆團體組織에着手하고잇서 近近實現될것으로보인다 吳佩孚氏出馬에따라 各地의 耆老團體成立과함께 和平運動으로써 明確한 核心을 가진 全國的으로 有力한 運動을 惹起할것으로보인다 團體는 이項目의 出馬의 意思를 明示한五氏를 마지하야 和平救國 運動에 邁進하는一方 五氏의 軍事的勢力에依하야 治安確保에 着手하기로되는바 이리하야 重慶政府를 中心으로하는 抗日勢力은 汪精衛의 聲明에依하야 內部的으로 深刻한 分裂이생기는一方 中國民衆으로부터 組織的和平運動의 挾擊을 밧게되며 更히 我軍의斷乎한 軍事行動과 相依하야 益益 窮地에 빠지게되며 事變以來 一月中에 和平의 胎動을볼 新段階로 드러가게되엿다

吳佩孚氏通電內容

【北京二十六日發同盟】朝野의 懇望을 저바릴수업서 出馬를 決意하엿다 吳佩孚氏는 江元鍟氏에 對한 返電形式으로 歷史的蹶起通電을 如左히發하엿다

通電(一)

▲江天鐸氏以下十六名에對한 返電

貴電은 拜承하엿다 言言拜하고 憂傷에 不堪하야 遜後아직도 慘裂을느긴다 昨年事變 勃發以來 近諦에 兵戈가 이러난後 逐次擴大하야 드디어 全國에 波及되엿다 同種의爭鬪에 天人은 함께 슬퍼한다 山野는 變하고 洪流도 다하야 曠古未聞의 慘狀을 목하엿다 公等은 人民의窮狀에 腐心하야 和平唱導에 努力하기를 余에게 激勵하엿다 이는 余의 達치못한 宿懷와 忽然 一致하는것이다 國權을 毁損치 안코 財貨를 維持하며 人民을 救하고 太平을 恢復함에는 如何한 艱危도 辭讓치 안는바이다 願컨대 文化의 中心、中外의視聽이 모혀잇는 南支에서 聲氣相通하야 協同하고 意見이 一致되면 余는 반드시 公等의命에따라 誠心이에 答하려한다

吳佩孚 拜

通電(二)略

通電(三)

▲鄧泰先以下五名에게

十七日附 貴電을 拜讀하엿다 國事에對한 關心의두터움을알고 感佩不堪하다 和平의稱讚은 遼近을가리지안코 公等은 老將、德望이 놉고 大計에 富하다 旣히 病源의所在를 察知한以上 그改革에當하므로써 腐敗의計로한다 생각컨대 只今의 事態는 重大하므로 모름지기 萬衆一心 各方面의 協力에 依치안흐면 所期의 目的을 達하기어렵다 余는 몸으로써 國家에 許하기에 해를거듭하엿다 如何한 艱難일지라도 忌避할바가 아니다 附託을 바듬에 잇서서는 必히 道義에依하야 이에따를것이다 貴電의 過分한 推擧를 붓그리고 다만 慚愧不堪하는바이며 삼가返電하노라

院內大臣室서 五相會議開催

【東京電話同盟】政府는 二十六日 午後五時二十分부터 院內大臣室에 五相會議를열고 平沼首相、有田外相、板垣陸相、米田海相、石渡藏相出席、前日에 繼續하야 有田外相으로부터 歐米의 諸情勢에關하야 說明한後 이에 對하야 平沼首相으로부터 各閣僚에게 忌憚업는 意見開陳을求하야 協議한結果 이에對한 重要方針을 決定하엿다

支那新政權에도 國防金을分擔시킬터인가

中島氏、衆院豫算總會서質問

【東京電話同盟】衆議院豫算總會는 二十六日午後一時四十分再開

中島氏 十四年度豫算中에 滿洲國國防分擔金이 計上되여잇지안흔데 이것은 恒久的으로 計上치안흘 方針인가

石渡藏相 今年度는 滿洲國에서는 國防上相當한 經費가 必要한때문인데 將來永久히 受入할을 停止할것은 아니다

中島氏 將來支那新政權에對하여도 滿洲國에依倣하야 國防分擔金을支出시킬생각은 업는가

藏相 適當에따라서는 受入할지도모르겟다

中島氏 滿洲事件費는 今後臨時軍事費中에 計上할생각인가

藏相 그性質上 十四年度에잇서서도 一般豫算中에 計上하지안햇다 臨時軍事費豫算에 計上함이 妥當하다고 생각한다

中島氏 豫算全體를 通해보건대 便宜主義의 豫算이 만흠은 遺憾이다 그리고 拓務省豫算과 朝鮮、臺灣兩總督府豫算及農林省豫算을 서로關聯시켜서 產業政策의 見地에서 보건대 一貫한點이업고 矛盾하는데가만타 全體를 通해보면 豫算編成은 戰時體勢를 갓추지 못한것갓다

藏相 豫算에 關하여는 金額以上으로 內容이 變化하고잇서 새經費도 計上되엿다 治水治山工事는 多年의 懸案이다 이것이 進捗되지아니하므로말미아마 各種災害가 頻發하고잇스므로 그根本策樹立이 必要하다 農林省經費中에는 移出農產物興動其他 馬政計畫以外에 時局色을 加한豫算이 計上되여잇다 滿洲移民에 對하여도 農村方面에서 農村子弟를 移民시키기위하야 必要한 經費가 拓務省豫算中에 計上되여잇다 實行豫算編成에 對하여는아직考慮하지 안하엿다

中島氏 政府는 此際에 中央地方을 通한 稅制改革을行하는同時에 行政整理를 斷行고해와다

行政機構改革에 對하여는 同感이나 그로말미아마 드리어 人件費가 增加되는수도 잇겟스므로 愼重히考慮할方針이다

八田商拓相 滿洲米의 移出管理는 米의產額을 減少시킬 念慮가잇다고 말하는이도 잇스나 決코 그런일은 업다

木戶內相 行政機構問題는 事變以來 官吏가增加되여잇다 그러나長期建設에따라 이것도 漸次整備해가지안흐면 아니된다고생각하고잇다

中島氏 昨今의統制萬能主義는 不合理한點이잇다고생각되는데如何

商拓相 急激한狀態의變化에依하야 그런不合理한일이 생기는點에對하여는 萬全을期하야 是正해갈생각이다

小笠原三九郎氏(政友) 商工省內에 大藏省爲替局의分室을設置한것은 適當한處置인바 政府는更히積極的으로 商工、大藏、外務各省에關한 實行政策을 一元化할생각은 업는가 內閣情報部의 特別委員會設置는如何

平沼首相 그것은 多年問題가되여잇는點으로 充分考慮하겟다

小笠原氏 大藏省爲替局의運營은 金融資本中心이라는 非難도잇고 日本의大藏大臣은 金融資本과大藏省의官僚出身으로 서로돌려가며 大臣을한다는 非難도잇는데 首相은 이點을如何히생각하는가

首相 大藏大臣을 서로돌려가며한事實은업다 그리고金融만에偏重하고 產業을輕視한事實도업다

小笠原氏 國民生活을安定시키기위하야 賃銀制度를確立할 必要가잇다고생각하는데如何

廣瀨厚相 生產力擴充의見地에서도 賃銀制度의確立이肝要하다 總動員審議會에서도 賃銀規定에關한 要項이決定되엿다 熟練工養成爭奪防止等에依하야 將來에 賃銀은 適當히落着될것이다

小笠原氏 살라리맨階級의 健康保持上 職員健康保險制度를 實施할생각은업는가

厚相 職員健康保險法은 昨年[illegible] 그實施에關하여는 充分考究하겟다

小笠原氏 [illegible]保險制度를 實施할생각은 업는가

厚相 目下愼重히考究하고잇다

小笠原氏 生產力擴充計畫으로말미아마 今後必要로할資金은相當히多大할것으로생각한다 그金融調達에關한 具體案이잇는가

藏相 貯蓄奬勵資金調整法强化等에依하야 必要한方面에 資金融通할생각이다 또總動員法第十一條發動에依하여도 資金融通을 圓滑히해가려고생각한다

小笠原氏 政府는 興銀의增資及 社債發行限度擴張으로써 當分間支障이업스리라고생각하는가 特殊銀行 또는 一般銀行에도 第十一條에依하야 强制貸付命令을 發動할생각인가

藏相 政府는 補償債發行限度를 五億圓에擴張하고 또興銀增資에依하야생기는 資金을運轉해갈생각이다 于先 特殊銀行其他를通하야 第十七條의 貸付命令을 發動치안코 當分間은 興銀으로만 해가고십다

小笠原氏 今後도 對滿支金融을 興銀으로만하여금 하게할생각인가

藏相 從來에도 興銀만이아니라 시디케트團이 모혀서 對滿支金融을 擔當하고 잇는터로 將來 支那關係의 金融도合하야 全部 興銀에서만시킬생각은업다

小笠原氏 興業債가 相當히 限外發行을 하고잇는데 될수잇는대로 빨리 補償準備를 할必要가 잇다고생각한다 正貨準備와의 關係로보더라도 十億圓을 擴張해서는어떠한가 생각하는데如何

藏相 今日의 通貨狀況으로보면 補償準備擴張은 必要하다고 생각하고잇스즉 그擴張에 對하여는 今議會에 提案하려고한다 너머 多額을 擴張함은 心理的으로 조치못하므로 十億圓은 너머 大額인것갓다

小笠原氏 [illegible] 補償準備擴張함이 조치 안흔가

藏相 [illegible]、鮮銀도 限外發行을하고잇슴은 그다지 滋味잇는일이아님으로 目下具體的으로考究中이다

小笠原氏 輸出產業은 平和產業이라도 더奬勵하는方法을 取함이如何 (以下略)

"哀兵犧戰"으로서 東亞救國에貢獻

五中全會에서蔣豪語

【上海二十六日發同盟】去二十日부터 重慶에서 開催中인 五中全會에 關한記事는 國民政府側은 汪精衛의 脫出에伴하는 內部的不統一의 暴露됨을 두려워하야 一切報道를 禁止하고 모두 事後에 發表하기로하고 잇는바 二十六日의 支那紙는『日本의失敗、中國의必勝을 事實로써 證明함』이라고 題하고 開會當日蔣介石의 演說을 一齊히揭載하엿는데 그要旨는 다음과갓다 今次五中全會의 任務는 第二次抗戰의 開始에 當하야 特히重大하바로 今後成敗의 열쇠가되는것이다 이重大한段階에 處하기위하야 個人은 抗戰革命貫徹의精神을 一層堅持하여야한다 現在의抗戰第二段階는 從來의守勢를轉하야 攻勢를出하고 敗勢를轉하야 勝勢를 轉하야한다 이成果는實로吾人의 革命的精神如何에달려잇다 따러서 吾人의作戰의第一要素는 抗戰目的을確實히認識하는 것이다 敵과我의情勢力에對한 正確한認識을가지고 吾人의決意信念에依하야 强化하여야한다 吾人의抗戰目的은 三民主義에依하야 民族의生存과 自由를確立하고 革命救國의實을 擧하야 萬若抗戰을中途에서 放棄하고 或은妥協和平가 되면 我民族은 滅亡하고 子孫代代奴隷가되며 國家는敵國의 植民地化할것이다 그러되 敵國은 外交政策에서 失敗하고 이제 國際的孤立에陷하야 旣定大陸政策도 또變更치아니하면안되게되엿다 그러므로 우리는抗戰精神力의强化로써 全面抗戰을强化하야 中途에서妥協하지안흐면 中國은 반드시勝利한다 國際情勢의發展方向은 信義와平和擁護의方向으로向하고잇스며 各民主國家도 侵略戰防守의決意를 굿게하고잇다 吾人은 이公理와 正義의 發展에應하야 抗戰徹底工作을遂行하여야한다 中國의 抗戰은 中國을 救하려고 이러선 哀兵이며 犧戰이다 古來哀兵은 必勝하며 犧戰은반드시 勝利를 엇는다고 한다 吾人은 이哀兵犧戰으로써 東亞의 救國에 貢獻하려한다 今後吾人은

一、一致團結하야 敵에對應하고

二、我農業國家로서의 特徵을發揮하야 敵의 工業國家로서의 弱點을衝하고

三、我地理的優勢를 利用하야 一切 戰時建設을 强化하야 敵國家社會의 崩潰時期를 促進하고

四、三民主義를 强化하야 敵의 武力主義를 打倒하여야 한다 吾人은 自己의 革命的責任을 認識하고 奮勵努力 抗戰勝利의 革命大業을完成하여야한다

바市完全陷落

프랑코政權發表

【부르고스廿六日發同盟】프랑코政府는 廿六日午前 드디어 바르셀로나를 攻略하엿다는旨를 如左히發表하엿다

프랑코軍은 何等抵抗을밧지안코 바르셀로나를 占領하엿다

히總統、獨逸國會에 平和會議召集提唱?

植民地、軍備縮少問題等으로

【倫敦二十五日發同盟】히틀러總統이 來三十日 獨逸國會開院式에서 試할演說은 西班牙人民戰線의 敗退에伴하는 歐羅巴의 新局面에 對하야 重大한 波紋을 이르킬것이라하야 英國政界의 注目을끌고잇는바 某方面의 情報에 依하면 히틀러總統은 國會演說劈頭에 世界平和確保를 위하야 平和會議開催를 提唱하지안흘가고 보인다한다 히틀러總統은 平和會議開催에 依하야 프랑코政權의 覇權確立後에 잇서서의 歐羅巴政局의 安定策、獨伊波에 對한 植民地分割讓渡案 軍備縮少案等 歐羅巴政局의 重大問題를 徹底的으로 審議할것을 表明하지 안흘가고 보이는바 英國首相의 四國會議招集說과 아울러 그推移는 注目된다

【巴里二十五日發同盟】巴里의 外交消息通은 히틀러總統은 國會演說에서 世界平和會議를 提唱하리라고 豫想하야

一、프랑코軍이 勝利를 어든後의 歐洲平和案

一、獨、伊에對한 植民地再分割

一、軍備縮少

의 三問題를 審議할것을 提唱할것이라고보인다

【伯林二十五日發同盟】西班牙內亂이 終末에 가까워짐에따라 獨伊의 植民地要求提示說이 傳하야 國際政局은 微妙한 展開를 豫想케하는 이지음 히틀러總統은 來三十日 주데텐地方併合後 最初의 國會를召集하고 三十日午後八時國會開院式에서 得意의 獅子吼를 試할터이다 히틀러總統의 發言은 歐羅巴政局의 前途에 적지안흔 影響을 미칠것으로 매우注目된다 今番 獨逸國會는 獨墺合邦完成의 뒤를 바더 去四月十日의 選擧에서 選出된것이며 更히 昨秋주데텐地方合併에 伴하야 주데텐地方에서 執行한 補欠選擧에 依하야 새로 주데텐獨逸人議員도 參加하고잇서 名實그대로 大獨逸國會이다 그리고 國會는 아직 國會議事堂의 改築工事가 完成되지아니하야 크로르오페라에서 開催될豫定이다 (寫眞은 히틀러總統)

무首相도提唱?

【倫敦二十五日發同盟】바르셀로나 陷落이 目睫間에 切迫하야 西班牙의 動向에 對한 伊太利側의 態度가 注目을 끄는 이지음 二十五日델리메일紙羅馬特電은 바르셀로나 陷落後 무首相은 英佛獨伊四國會談을 提唱西班牙政局의 收拾策을 協議할意向이라는旨 如左히 報道하엿다 確實한 側으로부터의 情報에 依하면 무首相은 바르셀로나 陷落後 곳英佛獨伊四國會談을開催할意向으로 會議席上에서는 西班牙問題解決策에 關하야 特히 協議하도록 提唱할것으로보인다

總督府人事異動評

古庄京城稅務監督局長의 中央無任에伴한 總督府人事異動은 別項과가티 決定된바 前回松本慶北內務部長의 新任에比한 異動과同樣 大體順當한것으로 異論은 업는듯하다 卽 藤本會計課長의 監督局長은 이미 一般에게 豫想된바로 오래 財務部門에서 鍛鍊하고 稅務課長의 經驗도잇스며 남보다 溫厚한性格은 稅務監督局長으로서는 適任이라는것이 一致한評이다 高[illegible] 다 또第一線으로부터 後退하는寂寞感은잇스나 松本慶北內務部長의後任으로 豫想되어 傷心하고잇든同氏로서는 不服은 업슬것이다 會計課長으로서는 適任일지도모른다 이로서 今回의 異動은 會計課長을 格下하야 年少한者를 起用한다는 風說도一掃되엇다 八木新學務課長은 井坂文書、山地理財兩課長等과 同期의 十五年出身으로 警察部長級의 逸材로서 異動때마다 風說을 傳하고잇던바 겨우實現되엇다 前부터 國民學務局長이 懇望中의 人物로 三橋警務局長의 懇望도 滿足시킬수업서 不得己 노진듯 하다 學務課長의 椅子로서는 榮轉이라고는 할수업슬지 모르나 時局下 精神運動의 中樞로서 學務課의 任務가 一層加重되어온 此際 同氏의 手腕에는 多大한 期待를 갓게하야 今回異動中의 焦點이라고한다 山村江原警察部長의 慶北行은 昨年內務部長 鹽田氏가 鐵山課長을 取함인것에 步調를 마추것은 아니겟지만 最近各種의 意味에서 注目되고잇다 江原道에서의 手腕이 今日을 招來한듯하다 岡新江原道警察部長은 高尾課長의 會計課長과함께 學務課를 二人이모두 떠나게되는것인바 過日의 織崎全北과 同期이며 또 一般의 評判도 良好하여 同氏로서는 過度히 速한것도 안니라 하겟다 東京外語에서 西班牙語를 專攻한 人物인듯 期待가 만흔것이다

人事・集會

▲瀨戶道一氏(慶尙北道內務部長) 新任人事次來社 二十六日午後三時京城驛發赴任

▲村山道雄氏(總督府稅務課長) 二十七日午後四時十五分 京城驛發渡東

▲片倉中佐(關東軍參謀) 入京中 二十六日午後一時半 京城飛行場發旅客機로歸任

▲崔亨根氏(南大門市場商人聯合會顧問) 二十五日中林町一一四自宅에서別世

夕刊後市況 廿六日

橫濱生糸 六〇〇

鮮烈!! 二月特大號・特價一圓卅錢

中央公論

今後の國政 戶澤鉄彦
東亞協同体理念と國際法 大澤章
ソ聯對支政策の動向 堀江邑一
旅の梅(日記) 菊池寛
英米の對日壓迫の程度と限度 (清澤洌)
滿洲移民と支那の文化―作 下村海南
轉換期に於ける教育 吉田謙三

平沼內閣檢討
事變下における政治
運營の問題……蠟山政道
平沼新首相論……岩淵辰雄
新總理へ直言する 芦田均 横田喜三郎 關口泰 小林一三 清瀨一郎 大口喜六 清澤洌 鈴木文史朗 山崎靖純 石原純 栗本勇之助 宮澤俊義 御手洗辰雄 河野密
石渡藏相と財經策…小汀利得
平沼內閣の人物……山浦貫一
近衞內閣退陣の悲劇と新內閣の誕生……木原通雄

政變と事變 馬場恒吾
☆人物論☆
草汁庵先生 宮崎稔
南支戰線を征く (グラビア) 衣笠貞之助
財政の動向と將來 (阿部賢一)
☆列强極東政策の現段階……田中直吉
□ほがらかな政治 (卷頭言)
佛國人民戰線沒落史 淡德三郎
(大衆讀物) 猪鼻俊三
本因坊自傳……本因坊秀哉
兎の耳……中谷宇吉郎
身の上噺
公論月評 新聞・科學 風俗・演劇・映畫
かかづらひ 正宗白鳥
蝸牛庵聯話 幸田露伴
□北支だより(島一郎) □上海だより(內山完造) □東京だより
父の肖像 博文の私生活…伊藤文吉 芋錢の死…小川
戰歿無名インテリ兵士の手記 故太田慶一
法律文化の三十五年 牧野英一 ☆十一條問題其後 草田時雄
沒法子 清水幾太郎
戰野を想ふ 富澤有爲男
隨筆歲時記 森田たま
谷崎文學の民族性 日夏耿之助 ☆源氏物語と口語譯 谷川徹三
汪聲明の渦紋 吉岡文六 横田實

知識階級總動員 懸賞入選發表
論文 日本の世界史的目標
創作 海女 大田洋子
前線で知識階級出身の兵士達が素晴らしい戰士だといふ定評は、我々銃後のものの心を明るませ奮ひ立たせる。ここに發表する入選論文・創作は即ち前線將士に應へる全國知識人の赤誠を昇華したものに外ならない。
★大衆小說・中間讀物佳作十篇發表★
ある從軍部隊(小說) 尾崎士郎
加納部隊死鬪記(小說) 吳淞クリーク 日比野士朗

初年兵進路

血汗、十五年間螢雪의功에 엉키는報應

형설의 공이잇서 다녀간 언어온 재능을 버서버리고 삼춘가절의 양광을 새로운 「세비로」에 바드며 장기건설 전에 참가하는 전사들의 진군보(進軍譜)는 듯기만하야도 씩씩하고 아름다운 「멜로듸」이다

오는봄을 경성제대를 비롯하야 부내 남녀십일개 전문학교 교문을나서는졸업생은 총수백이십구명으로 취직 전선은 장기건설에 대량 동원되는 인적자원의 경기를반영하야 대활약을띄이고잇다 고등어어가르 「엔지니어」생산치는 작년말에 벌서 전부결정되엿는데도 불구하고 요사히도 하로에멧차식 구인소개가 들어와 학교당국에서는 조회해야 될는지 어찌하면 조흘는지 모르는 형편이라고한다 초급 「살라리」가튼것도 최고 일백육십원 평균으로도 백원전후로 작년에비하야서 일할 내지 이할 비싸젓다고하니 십삼사년 내지 십칠팔년동안 꾸준히 싸워온 그들의 공은 「스타-트」부터 호화판으로끈갑허지는 세음으로 취직전선 초년병의 진군보무는 더욱 당당하게 보히다 새봄을마지한 그들의 전도에 기리기리 복이 꾸준히 잇기를비는이는 부모형제 친척뿐이아니요 사회가그들에 기대하는바도 지실로 큰것이잇다

高工 上之上

졸업생은 방직과(紡織科)가열명 응용화과(應用化學科)가여덜명 토목과(土木科)열아홉명 건축과가열네명 광산과가열세명 모두육십사명(조선인학생만은 이십팔명이다)인데 시국관계로 취직경기가 비상히조하서 방직과에 아직확정안된것이 네명이잇슨외에는 전부가 벌써작년말께에 결정되엿다한다 초급은 만주채금(滿洲採金)에 일백륙십원이 최고이고 최저는 육십원정도이라는데 대체로보아서 작년보다초급이올랏는데 남은방직과의네명도 자리가업서서가아니라 조흔자리를 골르느라고 맛성거리고잇는정도이라고하니 여기서는취직난운운은 잇슬리가업다

普專 그저쑥쑥한편

보성전문학교금년졸업생은 법과(法科)칠십이명 상과(商科)구십이명 합 일백륙십사명의학사가 교문을나오는데 취직상황은 대체로양호하야 작년보다는 약간활기가잇서보인다 법과에서는 행정관청이 주장인데 여기는 삼월이아니면 결정되지안코 은행회사는 벌써결정이되엿다 그중만주국에서 관리로와달라는 주문에따라 세사람이 가기로되엿스며 월급은 최저오십원에서부터 최고일백이십원까지의 호화판이다

▲法科 七二名中 就職決定 四〇名

▲商科 九二名中 就職決定 五二名

帝大 文科는未決定

▲法學部▲ 예과(豫科)이년제가 삼년제로 변한관계로 법문학부는 금년은 원측으로서는 졸업생이업는해이나 전해에 졸업햇서야 될것이 금년으로 밀린것이 다소잇서 이것이 법과에 십륙명 문과방면에네명 합 이십명인데 그중에서는 법과십륙명은 은행회사에 벌써 일곱명이 결정되엿고 총독부에 다섯명 가량이 거의 확정적이고 남은 네명도 다른방면에 각각 취직을 교섭중인데 지금예상으로서는 열여섯명전부가 취직될것으로 학교에서는 낙관하고잇다 문제는 문과방면의 네명인데 대개가 학교방면으로 팔릴터로 아직은 확정된것은 업스나 네명쯤은 문제업시 처분될것으로 어렵지안타하고잇다

▲醫學部▲ 육십륙명이졸업할 예정인데 군의 두명과 만철(滿鐵)지원네명과 적십자병원 지원한명을 제하고는 모두 그대로 예년과가티 학교에 남어잇서 기초(基礎)와임상(臨床)에서각각더연구를계속할터이라고하니 여기서는 취직난운운은 문제가안된다

高商 運數大通

졸업예정이 구십이명인데 사변관계로 구십이명전부가벌써지난 십이월에취직이결정되엿다는호경기이다 그중약이할이 은행방면이고 남은 전부가 회사방면에결정되엿는데 금년은 고주파(高周波)에서 단번에 아홉명이나채용한것이 이채이다 초급은 만주방면이면 일백삼사십원이고 조선내이면 대개가 육십오원내지칠십원인데 대체로 보아서전해보다 약간식급료가놉다고한다

醫專 研究生이累皆

오는삼월에 이십일제의 졸업생으로나올 "젊은선생님"이팔십명 그중 조선사람은이십명이다 내지인육십명중에서일곱명은 군의의탁생(軍醫依託生)으로부속병원에서연구를계속하기로되고 삼십륙명은징병검사(徵兵檢査)를바더야 되는관계상 취직은생각하지도 못하고잇스며 조선사람은 거의전부부속병원에서 실습과연구를 계속하기로 되엿스므로 이학교졸업생의 취직문제는 졸업후삼사년뒤에야 대두되는것이 다른학교에서는 볼수업는 특색이다 그러나 전시하 여러가지 관계로 의사가 대단히 모자라는때라 주문은졸업생의 수효보다 초과하는성황이라고한다

世專 就職半開業半

금년봄 졸업예정자는사십팔명인데 취직은 아직결정되지안햇스며 내월부터 결정될 모양이라고한다 금년예상은 예년과가티약 반수는 취직또는 개업을 하게되며 남어지는 병원에서 연구도하고상급학교로 진학하게된다

齒專 大陸進出顯著

졸업즉시로 개업을하는 학생도잇스나 대개는 취직을 희망하는 학생이만흔데금년에는 멀니만철(滿鐵)북지(北支)등을 비롯하야조선안각관공립병원으로부터구인신청이드러와서 팔십일명(그중조선학생 십팔명)졸업생중에서 오십여명은 취직결정이 되고 남은학생들도 내월중순경까지는 확정되리라는데 예년에비하야 대우도 훨씬조흔편이 아니라구인하는곳도만타한다

藥專 全部就職

화학공업발전에따라 약제사를구하는곳은 한두곳이아니다 조선에는 졸업하고 취직하려면 의례히 병원으로만 갈뿐이엿던것이 금년에는 유지공장(油脂工場)을비롯하야 공업개발회사(工業開發會社) 제약회사(製藥會社)등 화학공장에서 평균팔십원이상의 조흔대우를조건으로 부르는바람에 팔십칠명이나되는(그중조선학생이삼십구명)졸업생이 전부취직결정이되여 해마다단골로보내던 병원에는 내년으로 미루는수밧게업시되엿다한다

法專 決定은約半數

경성법학전문학교에서는 금년에 오십오명의 법학사가 교문을 나오게되엿는데 그중 조선사람이 사십삼명이다 이학교의 졸업생은 주장 행정관청의취직이만흔데 금년에 벌써 결정된것은 이십구명이요 남어지 재판소방면의것은대개 십칠명가량 주문이잇스나 결정은 삼월말이 아니면 나지안는다하니 이것도 떼여노흔당상이며 만주국에서 관리로 와달라는 주문이쇄도하고 잇스나 지원자가 한사람도업시 예날법학사만능시대가 또 다처오는냥 월급은 최저 오십오원에서 최고백원까지라하니 취직난시대의 선배들이 들엇스면 [illegible]키도 독되엿다

卒業生 五五名中

延專 昨年보다好績

就職決定 一九名

문과(文科)열혼세명 수물과(數物科)열다섯명 상과(商科)육십팔명으로 합계일백십륙명인데 수물과는 철도국에 다섯명이 취직된것을 비롯하야 교원, 광산, 회사등에 이미 전부가 취직이 결정되엿고 상과는 은행, 회사, 금융조합등에 이십명가량이 결정되엿스며 문과는 아직 취직이 결정된사람은업스나 삼월말일까지는 반수가량이 취직될것으로 매우낙관할수잇는 정도라고한다 또한 취직활동은 작년동기에비하면 금년은 매우 조흔편이라고하며 취직이 결정된 사람의 대우도 작년에비하야 일할내지 이할이 조와젓다한다

梨專 圈外에서悠然

이화전문은 문과(文科)열세명 음악과(音樂科)열다섯명 가사과(家事科)스물여덟명으로 전부오십륙명이며 작년보다 열아홉명의졸업생이 불엇다 금년졸업생중에서 취직이 확정된사람은 아직업스나 삼월초순까지는 대체로 작년과가튼비례로 취직이될것이라한다 작년의동교졸업생의 취직상황을보면 문과가여섯명 음악과가다섯명 가사과여섯명 기타상급학교 두명이잇섯는데 이학교는 졸업생들이 반드시 취직만을하려는 곳이아니니만치 취직이 그다지 큰문제는아니다

學術振興朝鮮委員會 講演과映畫의밤盛況

일본학술진흥회조선위원회주최의『강연과영화의밤』은 이십륙일오후여섯시부터 부민관(府民館)에서 열렷는데 초만원을 이루엇스며 재부(財部)해군대장의『시국에대한 진흥회의입장』이란제목의 강연과 길전(吉田)육군대장 임권조(林權助)씨등의 강연이잇슨다음 과학영화 상영이잇섯고 오후시경 대성황리에끄마첫다 (사진은 회장과 림석한 남총독)

當局、斷乎暴利取締

全道的으로取締令發動準備

「아사히지까다비」에鐵槌!

본정서에서는 수일전부터 시내약초정(若草町) 야촌(野村)상점, 남대문통 길야(吉野)상점등에손을뻐치고 관계자다수를 데려다가 취조중인데 탐문한바에 의하면 이들은 지까다비가 요즘 물건이품귀해진틈을타서 턱업시갑슬올려 부당한 이익을내고잇는것이 판명되엿기 때문이라는데 보고를바든 경기도 경제경찰과에서는 아사히지까다비의 폭리판매는 비단경성만이 아니라전조선각지의 특약점에 미치고잇는사실에 비초여 단호응징하기로방침을결정, 불일내로 이뜻을총독부 물가위원회에 전달하는 한편폭리취체령을 발동코저준비중이다

自動車가大破

이십륙일 오전한시경 의주통(義州通)일정목 동양(東洋)자동차부 이석영(李錫永)의 운전하는 경제구천삼십칠호는 종로에서 동대문으로 향하야달리다가 종로삼정목에서 전신주와 충돌 자동차를 대파하엿다

三江省初等教員 手續節次

申請期日三十日限

본사에서 모집중인 삼강성(三江省) 조선인 초등학교교사지원자는 마감날을 오륙일(이월삼십일까지) 압두고 지원자들의수속서류들이 답지하는바 모집마감날짜가 며칠남지 안엇스므로 원거리 지방에서 수속서류를우편으로 보내면 불급될염려가잇스므로 상경일까지 본인이 휴대하고 상경하는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그수속절차는 다음과갓다

一、履歷書二通(本人自筆)

一、最終學校卒業證明書

一、身體檢查證(官公醫가作成한것)

一、寫眞二枚(三個月以內撮影한半身脫帽한것)

李琮夏辯護士 不起訴로釋放

종중(宗中)소유의임야를 매각소비하엿다는혐의로 사문서위조 공정증서(公正證書)원본부실기재 사기등죄명으로 경성지방법원검사국 평석(平石)검사의취조를맛던 부내다옥정(茶屋町)일백육십삼번지 변호사이종하(李琮夏)씨는 이십륙일 불기소가되여 석방되엿다

서울이그리워 出奔한處女

서울그리워서 출가한처녀 이십오일밤아홉시경 본정거리를 방황하는 시골출의 처녀를 본정서원이 조사한바 그는 옥천군동이면세산리(沃川郡東二面細山里) 임순명(林順明)의 둘째딸 순이(順伊)(一九)로서 아버지의집 부름으로 돈이원오십전이 손에들자 이것을가지고 서울구경을하겟다고 집안사람모르게 오일 오후네시이십분차로 입경하여서 갈바를모르고 헤매던것이 판명되엿다하야 동서에서는 본적지로 조회하고 보호중이다

豚皮四千餘枚 月間獻金

【開城】 군수품에 중요한자원인 소가죽이 다량으로 소비되여그 공급이 부족하게되니까 나종에는 돈피(豚皮)가 그대용품으로 등장케되자 작년칠월부터 개성부당국은 돈피보국에 적극적으로 힘을써왓는바 지난십이월까지 즉 오개월간에 헌납한 돈피수가 사천여매나 되며 그근량이 이만이천칠백칠십근이라는데 이것을 가격으로치면 육천삼백사십삼원사십전이라한다

"即""決""處""分"에"異""議"

各地警察의墓石盜掘黨處分에

檢事局이送局指令

시국의 물결을타고 아직도 종석(鍾石)을 손에너키위하여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안는도굴당을 전멸시키기위하야 경성지방법원 검사국에서는 최근도내각경찰서에 다음과가튼 통첩을발하얏다 즉 종석을 도굴한자 장물고매한자 또는이것을 운반한자는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잇스니 잡히는대로 경찰에서 즉결처분을 하지말고 직접검사국으로도 보내라는것인데 도굴당에게는 큰위협을주는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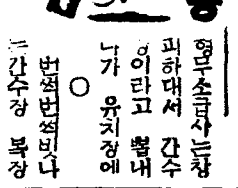
電車馬車大衝突

짐이날러들어와두명이중상

昨日 鹽川橋에珍事故

전차와 마차가 충돌되여 마차에 실엇던짐이 전차유리창을 깨트리고 전차속에 날러드러가서 사람이상하엿다 이십륙일오후네시사십분경 서대문에서 경성역을향하야 질주하던 경전박억순(朴億順)(三)의 운전하는백칠호전차가 봉내정(蓬萊町)삼정목 염천교(鹽川橋)우에 다다럿슬지음 그곳을 횡단하던 봉내정삼정목일백칠십번지 김성복(金聖福)(三)의마차와 충돌되엿다 마차에 실엇던 잡화물건을너흔 괴짝이 전차압 유리창을 부서버리고 전차속으로 드러와서운전수 박억순과 승객 경성상공학교 전기과일년생 김유직(金潤稙)(一七)의 얼굴과 가슴을부디처서 중상을 이펏는데 모두적십자병원에 입원응급수당을 가하야 생명에는 관계업고 전차와 마차는 다파손되엿다

(사진은 충돌현장)



○ 형무소급사는창피하대서 간수이라고 뽐내나가 유치장에 번썩번썩빗나는 간수장 복장이 울반이어니와 ○ 이 유지 [illegible]

○ 저잘난맛도 이지경가면 전중살이 미천이 돌분일세그려

○ 다라난 여편네ㅁ 절도죄로 고속, 그래도 미련은 남아서 도라오면 용서하겟다는「조전부」라던가

○ 고소취하의 깃븜이 오기욕권을 위하야 빌어 줄까。

午睡禍

京慶線工事場서 火藥爆發로負傷

이십삼일 오후열시십오분경경기도 양평군용문면 화전리(楊平郡龍門面花田里) 경경선(京慶線)북부송리(北富松里)터널공사장에서 공사용다이나마이트의 폭발로 굴속에서 낫잠을자고잇든인부두명이 중경상을 당하엿다 부상자는 전기용문면화전리(火田里)일백이십구번지 조학봉(趙學鳳)(三〇)외 가정집에 묵고잇든 박관재(朴寬在)로서 입구에서 일백삼미틀되는 굴속에서두사람이 잠을자는새에바로 거기서 이십미틀가량이되는 지점에서 화약을 터트릴때에는 「이제부터 화약을터트릴터이니 주의하라!」는 신호를 하엿스나 두사람은 자노라고 이신호를 듯지못해 이때문에 잠결에 화약소리를듯고 놀라 뛰여나오다가 운이사납게도 마지막한방에 걸려서 그처럼중상을 입엇다한다 즉시용문면전전(田門)철도의로소에 담어다가 응급치료를하엿스나 두사람가운데서 조학봉은 머리와 기타전신에 상당한중상이라 영락정(永樂町)이정목 식촌(植村)외과 병원에 옴겨다가 방금 치료중인데 생명이 위독하다

스포-츠뉴-스

日本精神發揚 町對抗繼走大會

申請期는二月五日限

旣報…朝鮮體育協會主催와 國民精神總動員朝鮮聯盟後援의 日本精神發揚週間은 二月八、九、十、十一、十二의 五日間에 亘하야 實施하기로되엿는데 行事는 南山登山會、武道大會、繼走大會、建國體操大會等인바 그中에서도 人氣를 集中케하는 繼走大會는 十二日午前十一時부터 朝鮮神宮大前廣場을 出發歸着點으로하야 盛大히 擧行할터인데 參加希望團體(府內各町對抗)는 來二月五日까지 所屬町名、團體責任者氏名(住所併記)과 選手氏名을 連記하야 總督府社會教育課內 朝鮮體育協會로 申請하기를 바란다고한다

하키-選手權에 京師軍優勝

朝鮮아이스·하키-聯盟 主催의 第一回 全朝鮮아이스·하키-選手權大會 決勝의 龍山中學對京城師範戰은 同日 三對三同點의 뒤를이어 二十六日午後四時부터 龍山滿鐵링크에서 再次 決勝戰을 擧行한바 結果 七對零으로 京師軍이 優勝하엿다

京師 7 {2:0, 2:0, 3:0} 0 龍中

【審判·吉川、田中兩氏】

마닐다遠征 制覇記 ②

籠球團主將 崔龍德

첫航海에 시달린 籠球團은充分한「튜레닝」도못하고 對戰케되니 自信조차업서 焦燥한가운데 出場하엿스나 先陣을마튼朝鮮出身五選手의 스타-트는 자못好調를보이어 더욱이 張利鎭 吳壽吉君의 正確性百퍼-센트의 投射術에는 滿場을 놀내게하얏다 相對팀인「맥킨데-」팀은米國陸軍內에잇는 比島人팀인데身長도 朝鮮選手보다 훨신크나「필드」와 防攻術은 우리選手들이 一日의 長이잇는듯하야 가볍게 三十七對 二十九의 스코어로最初의 凱歌를 올리엇다 이게임에 잇서서 「外籍인」 나로서도 朝鮮選手 張、李、金等諸君도지나친 興奮과 外國遠征이란 무거운 責任感을 늣긴탓인지 疲困한關係인지 氣力이업서 보이는데는 遺憾이 아니할수업섯다 이게임을 應援하려갓든 筆者는 여러섯든比島人에게 아래와가튼 質問을바덧다 日支事變으로 靑年層이 大部分出兵을하여야할터인데戰爭中에 이러케스포-츠팀을 遠征보낼는餘裕가잇느냐고 하면서感歎의 表情을 하는이가 잇섯다 이만치 外國人들은우리日本에對한認識이不足하다는것을 늣겻다 比島에다은지 三日째되는 二十九日밤여덜시반부터 拳鬪는東洋大學과 對戰케되여 아침이흘시에 計量를마치엇다 拳鬪의나라比島의興味는 日比拳鬪戰으로 總集中되여 熱狂的聲援을보내기지 안헛다 폴라이級의 金仁奎君은 이날이 國際舞臺에처음으로 오르는마당이라 京城이나東京에서보든 觀衆에比하야 몃倍나더되는 훌울에이는아에서게되니 조분가슴은 떨넛슬것이다 이윽고開戰을 알리는「공」소리와함께 比島「아리스베」選手와의激戰은展開되엿다 金君一回엔 愼重態度로 消極的戰法으로나아가 不利한듯하더니 二、三回에드러가「펀치」하야 카운터-로 左右스트레-트로 猛襲하야 相對를쉬일사이업시 苦境에 빠지게하엿스나 不利한判定에 金君愛惜히물러섯다 (續)

(寫眞은甲板上의比島遠征軍一同)

씨름의起源 五千年前?

米國「펜실바니야」大學博物館과 東洋研究學校가 서로協力하야이락國「메소포타미야」의「카프아에」의 古蹟을 方今發掘中에잇는데 最近發掘報告書가 發表되여그가운데에는 스포-츠界에對하야 興趣깁흔것도잇다는바 그것은「카프아에」의 古代「빠비로니아」王의 古墳을 發掘하던중 그속에서 珍奇한 土器와陶器類等을 發見하엿다 그發掘物中에는 두男子가 裸體로 相撲(씨름)하는 光景을 彫刻한 純銅製의 裝飾物이 發見되엿다 그것은 마치 朝鮮씨름과 恰似한姿勢의 型體로써 두사람이 모두褌(샅바)를 腰部에 두르고잇는데 이것은 只今으로부터 五千年前의 製作品이라고 함으로 相撲(씨름)의 歷史가 久遠한것을 想像할수잇다

三防스키-消息

鐵道局 入電에依하면 二十六日午前十時現在의 三防스키-場은 積雪六十五糎、氣溫零下十二度、天候快晴하야 良好한 컨디슌이다

霸者죠·루이스君 挑戰者류君打倒

【뉴욕二十五日發同盟】 世界重量級 拳鬪選手權을 目標로 躍進하는 라이트에비-級 選手權保持者 헨리-·루이스의 죠·루이스에 對한挑戰 十五回戰은 世界拳鬪界注視裡에 二十五日午後十時(日本時間二十六日正午) 뉴욕 마디손·스퀘어·가-든에서 擧行한바 루이스 斷然强하야左右猛打를 連發하야 겨우 一回二分二十九秒에 KO로이겨 挑戰者를 물리첫다

曆

▲一月二十七日(金曜)陰十二月八日 ▲干支甲子 ▲日出午前七時四十二分 ▲日入午後五時四十六分 ▲日南中午後零時四十六分 ▲晝間十時五十一分 ▲月出午前十時四十九分 ▲月入—— ▲滿潮(仁川)午前九時 後午九時二十分

…今日天氣… 晴後曇

學生限 檢眼無料 午前九時 午后七時
醫學博士 公柄禹 檢眼担任
醫學堂眼鏡店
京城醫專病院眼科指定
京城齊洞四街里 電光207

蜂蜜의大廉賣

採取한 純粹한 蜂蜜을 生産者로부터直接사면 價値한品을 廉價로 入手됨니다 (日本最古最大蜂場) 御實特價表送呈 岐阜縣 [illegible] 養蜂場

イキダヌキ 活狸 高價買入
산너구리 詳細照會를乞ふ
馬山府元町 電話五五七番
三陽商會養狸部

月經 [illegible]

神陰陽秘方仙藥
精力丸
京城西大門町·圓岩合資會社 試用三十日分 二圓

果樹苗木
京城府外蘇島
久次米園藝場

百日咳에
コデス
博士推奬 品質本位
定價二十錢부터 各地藥店販賣中

セイコウシャ營業所

胃腸을튼튼케하고 身體을强壯케하다
肥滿劑
小川藥院

醫界의絶讚

림질 바로-루錠

治療上의劃期的大成功
內服短期根治藥의出現

最新化學療法이完成되어治淋界에革命이왓다!

最新化學療法劑「로루다-」의 淋疾에對한卓越無双한 治療效力은 梅毒에對한 그우없는治療法六〇六號에도 比等할만한大發明으로써 全世界의醫藥學界에서 치하와감사로 絶讚을받고잇는바이오며 近者에잇어서의 淋疾治療上 劃期的大貢獻을일으고잇읍니다 (로루다-文獻을進呈함)

本劑「바로-루錠」이야말로 이治淋界의革新的新發見劑인「로루다-」를 主劑로써 이에다 다시 다른優秀한性能을가진 治淋藥物을配合完成하여서 藥理的으로 相乘的治淋效果를 남김없이發揮케만든 革新無比의新治淋權威劑로써 그녹특한偉效는 僅少量(一回에二-三錠)의服用으로 충분히 그威效를나타내어 淋疾을단시일안에근본적으로뿌리빼버려서 완전히 끗처줌니다 뿐만아니라 지금까지사용하여오든 注射 洗滌等々의 번잡한수고를않고서 安全하고도 迅速히所期의目的을達成할수잇사오니 이것만으로도 實로 現代治淋界의覇者이며 淋疾患者에의一大福音이라고할만한 革新的靈藥입니다

以上에말合드린바와갓이 卓效無上한 이「바로-루錠」을服用하오면 그獨特한性能에의하야 血液의循環을利用하여서 深部의病巢部에 직접透達되어서 속々드리뿌리박고잇는 淋菌을멸살식히는同時에 患部의新生恢復을도모하여주며 다시尿中에析出하여서 尿道와尿道側管內까지에도 세밀히침투되어서 全的으로 殺菌醫治作用을하여줍니다 이와갓이 體內深奧部로부터尿道로 治療의順道를밟어 全身的으로循環醫治하는「바로-루錠」의化學的新作用은 림균을근본적으로除去하여 再發을방지하여주기때문에 急性期에適好하오며 또한이것을運用하여도 胃腸을해하는법이없이 全面的으로奏效하는故로 慢性重症이나 복잡한婦女子의淋毒症에도 實로合理的입니다

▼바로-루錠은全道有名한藥房에서 販賣합니다

藥價 三圓 五圓 十圓

適應症
男女急慢性淋疾
尿道炎、膀胱炎
腎盂炎、攝護腺炎
子宮內膜炎、卵巢炎、喇叭管炎
消渴其他

製造元 應用製藥株式會社
大木合名會社
東京市神田區鍛冶町三丁目 (振替口座)東京五四〇番
支店 大阪市東區淡路町一丁目 (振替口座)大阪七七九五番
北支 北京東城小草廠胡同一號 電話(東局)二七八〇號

獨特한治療分野를開拓!

淋疾治療에「銀內服療法」의新天地를開拓한本劑「바로-루」는 京都帝國大學化學研究所에서嚴製한 世界唯一의銀內服治淋新藥으로써 治淋藥物中의二代表인銀과白檀油를 同研究所의世界的特許製法의應用에의하야 完全結合식히고 더욱히銀을特殊한極微粒子코로이도狀으로處理하여잇기때문에 그綜合的治淋作用—殺菌 消毒 鎭痛 收斂力은强化되어서 淋疾의短期治療에 넓히推奬賞用되고잇는바입니다

本劑와「바로-루錠」과의어느것이든지 선택하여서 이두가지藥의眞價를 充分히認識하여주십시요

▼바로-루는全道有名한藥房에서 販賣하고잇읍니다

藥價 一圓八十錢 三圓五十錢 五圓五十錢 十圓

京都帝國大學化學研究所 責任嚴製

製法特許 바로-루

中部版

躍進仁川의裏面相
細窮民一萬四千餘石
土幕民도百九十戶에六百餘名

【仁川】 십이만인구를 포옹하고 잇는 남로의요진을 거느린다는 인천항은 사변이래로 대륙정책의수행에 동양무역계의중심항으로 금년도 총독부예산에 한만식축비로 일백삼십만원을계상하야 이미 대장성의 사정까지 통과하야 압날의 대인천을 예기하는 대인천의 이면은 어떠한가? 인천부사회과의 작년말 현재로 등록되여잇는 초가하한드에서 쫏겨다니다가 사람다 왕래가업는 산전에 움막사리를 하는 토막민이 무려 육백이십칠명에 토막호수는 일백오십팔호에 달하며 세궁민(細窮民)세대수는 삼천칠백사십일호에 인구로 인구는 일만사천사백사십육명이란전 인구의일할오푼을 점령하고 잇다 대인천발전의 이면에는 이비탄을 자아내는 명암(明暗)이중주의 현상을 보이고 잇스므로 인천으로는 실로 거치장만하고잇는데 불과하다한다

開城署武道納會

【開城】 지난이십사일 오후한시 개성경찰서 상무관(尙武館)에서는 한계고납회(寒稽古納會)가 성대히 개최되엿섯다 참가단체는 개성공상(開城公商) 개성부(開城府) 소년형무소(少年刑務所) 유린생명(有隣生命)등오개단체로써 무사도의 심신을단련하는 정예분자는 총동장하야 이끼는자못긴장하야잇섯다 그런데 시합전은유도(柔道)나 검도(劍道)가 모두다 용장무비한품이 실로 용파범이 다투는듯 민첩하고도 장엄하야 장감케하다가 동내시경 무사히 시합을 맛치엇는데 우승한단체와씨명을 소개하면 다음과갓다

(柔道部優勝者) ▲一等柳慶(開警) ▲二等黃仁燮(開警) ▲三等張漢明(開警) ▲四等朴長文(開警) ▲五等朝長一男(開警)

(劍道部優勝者) ▲一等大田眞一(公商) ▲二等松田政(開警) ▲三等李圭薰(開警) ▲四等高橋敬三(府廳) ▲五等井上龍雄(開警)

長湍各靑年團査閱

【長湍】 장단군에서는 오는이월 십일일기원절을 중심으로한 일주일간 군내각청년단사열을 실시하는 동시에 생산보국성적이우량한단체를 표창식을 거행한다고한다

長湍郡年團	二月八日
郡內靑年團	二月九日
津東 同	二月十日
長南 同	二月十一日
大江 同	二月十日
江上 同	二月九日
大南靑年團	二月十四日
小南 同	二月十三日
長道 同	二月十三日
津西 同	二月十二日

工都仁川의氣焰
卅餘工場에職工萬四千餘名
能率도約二割이增進

【仁川】 부민천항의 매축장에드러선 공장을 비롯하야 부평(富平)평야가 아프로 공장지대로될 변함에 식자간에 부르짓는 경인일체의 실은 경인복선철도를 로 일입(日立)제작소가 진출하게되에 내지대재벌들의 이천향에 공장진출이 내약하게되자 향도이천은 일약 일대공업도시로서 갱신하게되는 이때에 이천구내의 현재대공장 삼십여개소에 종업원의수는 이천부근에서 조사한바에의하면 작년말현재로 일만사천이백구십명에달하는데 이를남녀별로보면 십육세이상의 남직공이 일만일천이백육십이명에 녀직공이 삼천삼십이명에달한다 그들의 임금은 하루에 얼마나 수입되나? 박직공장의 녀공은 최저 삼십칠전으로부터 일원이삼전에 지나지안코 남자는 구십전이상 일원오십전인데 로동시간은 열두시간이 박직취사 요금정미소는 녀공도 칠십전이상 일원이상 삼십전에 남공은 일원이상 이이까지가 최고이다 정미소는 로동 시간은 열시간에 한정이 되엿스며 그외에도 대부분이 한모양인데 삼십여공장에 만여명이상의직공을 통하한것으로보아서는 공도 인천의손색이 업스리만치 되여잇스며생산력의능률은 전년보다 이할이느러가고잇스므로 조선사람의기능은 바야흐로 고조되고잇다

"無情한男便"에게 옷이나차저주오"
홋옷입은少婦·警察에呼訴

【開城】 지난이십삼일아침 개성서에는 홋옷한벌을 몸에걸친젊은여자가 나타나서 치웁에못니겨 떨리는목소리로 내남편녀석이 전당잡혀먹은 의복을차저달라고 호소한바잇섯다 그는본적을 황해도사리원에둔 김여경(金汝京)이란 여자인데 스물한살때 그곳윤형옥(尹亨玉)과결혼하야 살다가 이년전에고만남편이죽게되자 그는이래 과부의몸으로 남의집 식모로도라다니며 눈치밥을먹고 지내다가 그래도 시변이 너무고독해든지작년음력오월경에 팔자를고처 개성서 배암장수하는 장시동(張始東)과 동거생활을 하게되여지난 일월까지 그와살어와섯는데장시동은 말만남편이지 녀달동안이나 살어야 옷한벌 안해주고또는 집안에는 쌀이업서서 안해는밥을굶기며 자기만떠도라다니기를일삼어와다한다그래하로는남편에게쌀을주사오게 돈을달라니까지금돈이업스니 네옷을잡혀식량을변통하면 나종에그옷을차저주마하므로 그래도그는부부정리에 이말을밋고 자기가식모노릇할때 마련해든 십여가지의조고리 치마를전부 전당잡히엿섯는데 그후로도 장시동은 안해를보아주지아어 쫏바... 건이엿다 이말을들은 경찰은 직시장시동을 소환하야 엄중설유할계획이라한다

府內小學優良兒童
百五十名을表彰
廿六日各校에서表彰式

경기도 아동장학기금사업규정에의하야 표창비든 부내 각소학교우량아동은 다음과가티일백오십명의 다수에달하는데 이십륙일오전열시 금상천황페하어성혼기념일을 복하야 각각교에서는 엄숙히 표창식을 거행하야 표창아동에게 표창장과 사전을수여하고 학교장으로부터 전교생도에게 훈화를하엿다 장학기금은 대정십삼년일월이십륙일 금상폐하어성혼날 교육을장려하압시는 거룩하압신마음으로 하사하압신 만흔돈을 기금으로하야 각도에설치한것으로초등학교아동중 우량자를 포창하야해마다 어성혼기렴일을택하야표창하야오는것이다

齋洞—朴道熙 洪潤植 洪學善 孝悌—尹至語 李源珪 沈璞來 金□培 光熙—朱圭完 吳福童 朴台□ 淸溪—韓萬根 金□泳 □□—□興□ 趙□承 梅洞—李雲□ 郭英俊 孔朝□ 尹德□ 渼洞—吳□□ 金□□ 陳元子 麻浦—文泰成 □文順 禮□—南□□ 安□□ 閔順□ 黃今女 金玉□ 錦町—李相□ 洪□□ 嚴玉□ 昌信—金大熙 張□□ 金基熙 壽松—金京甲 郭洪 辛昭春 孝昌—韓錦浩 朴炳俊 金□□ 芳山—高明善 崔□□ 鄭□□ 淸雲—朴□□ 金□□ 竹添—李□圭 張□□ 洪進□ 惠化—金正□ 李□行

舞鶴—鄭□悅 □江—金寬泳 金泳斗 漢南—成□敏 銀□—金仁澤 阿峴—李吉九 金花□ 又新—金玉龍 □明錫 □□—鄭□哲 三興—李□烈 全□ 協成—李忠□ 車文□ □□女子—李今錫 □□—朴□□ 李順□ 攻玉—朴□□ 康福能 加明—□承均 張□淑 □□—尹泰林 培花女子—李□□ □貞□ 東大門女子—李明玉 和光—□錫□ □□旭 □仁—申□均 華山—沈淇□ 阿峴女子—李貞□ 西氷庫—安漢甲 □□—□長洙 □□—張□在 □成—□正□ 興仁—呂寅達 □□—□□ □鳳□ 鍾□ 〃 —任炳宰 昌信 〃 —金秀順 竹添 〃 李壬氏 舞鶴—朴命吉

內地人各小學兒童

日出—高橋昭太郎 西川馬 木村英子 秋葉스미 南大門—本山昭一 岸川隆□ 森信子 淸水辰□子 富永□子 櫻井—馬場□太郎 西河□□ 近藤□子 那須良子 石田□□ 鍾路—五□和雄 林□孝 西大門—福井慶一 土井伸子 □川□子 東大門—笠井成二 岡崎迪昭 □川美□子 澤木□子 淸水直子 □田□미子 三坂—古原信義 岩島久夫 波多□子 宇都宮□子 小□原□시子 龍山—角南□之 □□寛男 □谷 □都田愛子 □□喜代子 元町—奧野八郎 □官□男 弘中良雄 山田百合子 □田千□子 南山—栗□八郎 久保□ 岸田□子 永登浦—黑田□ 倉茂喜代子 男子□等—武田□雄 古內□大上五郎 □川□ 淸水一雄 □川□ 十川□義

安柄珆氏를招請
提琴獨奏會開催
二月四日開城商校에서
(開城支局後援)

【開城】 개성공립상업학교 동창회(開城公立商業學校同窓會)에서는 오는사월 창립만이십주년을 마지하게되여 모교의 기념사업에 자금을조달키위하야 오는이월사일 오후일곱시반 본보개성지국후원미테 동교 대강당안에서 우리악단의 귀재(鬼才)안병소(安柄珆)씨를 초빙해다가 제금독주회를 개최하기로 되엿다 씨는작년여름 도일백림 국립음악대학(伯林國立音樂大學)을 우수한성적으로 졸업하고 도라온후 지난가을 본사주최로경성부민관에서 두차레나 연주회를개최해서 이기의 초절을 자랑엇든만큼 이미 제금계의 제일인자로 정평이잇거니와 이제 개성에음악″팬″들도 그의 입신의경지에까지달한 연주의방울 간절히 기다리고잇다한다

楊州署寒武道納會

【楊州】 양주경찰서 금년도모한 무도(冒寒武道)는이십삼일로써맛치게되므로 당일공회당에서 무도납회(納會)를거행하얏는데 근군포천련천(抱川漣川)각서의선수출장으로 예년에보지못하는 대성황으로 일중기장미를띄워섯고 성적은다음과갓다

劍道 一等古賀(楊州署) 二等武智(漣川署) 三等井上(漣川署)
柔道 一等福島(楊州署) 二等尹汝□(漣川署) 三等石井(楊州署)

長湍各面事務檢閱

【長湍】 장단군에서는 신춘조조 군내각면사무검열을 실시하게되여 거열만회원(檜垣)내무과장이하 각계직원일행은 지난이십삼일부터 이십팔일까지 육일간에 걸처서 대강면(大江面)강상면(江上面)이개면을 거열키로되엿다

新年度、新堂町에
電話分局을新設
그經費로約八十萬圓計上

경성의전화시설은 본국이자동식인데 광화문 용산은 호출식이되여서 절름바리의 늣김이잇슴을아니라 가입자들도 불편을늣끼고잇스므로 체신당국에서는 광화문과용산도 자동식으로 변경하랴는희망의사는 가지고잇스나국가다사다단한 이때에 경비예산을어들수가업서서 매우고심하고잇스나 아직도 어떠케할 방도가서지못하엿다 그러나 일반광화문국은 벌써포화상태이여서 어떠케 해서든지 설치하여야만하게되엿스므로 소화십사년도에 그경비로 약팔십만원을계상하고 신당정 용곡녀학교의 인접지에 광화문국동분국(東分局)을 신설하고그와와채을 도모하는동시에 먼저광화문국을 자동식으로 변개하기로되엿다한다 그리고 용산분국의 자동식은 영등포와의 관계도잇스므로 금후얼마동안은 그변경을 연기하기로되엿다한다

開城妓生의花代
每月平均百餘圓

【開城】 물가는다락가티올는고일... 매년 수입이일천여원에 한할 수입은 백여원이나되는세음이다

西橋町耶蘇教會에
夜學을새로開設
男女七十餘名이會合

【延禧】 숭천에 놉피 솟아잇는 (延禧放送)『아레나』 연희방송소가잇는 시내서교, 합정, 망원정(市內西橋, 合井, 望遠町)은경성부로 편입은되엿스나 빈민노동자 농민이 만히살뿐아니라교육기관이 한아도 업서서 배움에 굶주린 사람이 만은것을심히ㄱ갑으로 생각하고 잇는중에 그곳 정회교화부 주선으로 빈한하여 글공부못하는 적민들을위하야 위선 야학이라도 경영하여 비상시에 잇서서 국어보급 문맹퇴치를 하려고 그간 제반준비를 하여가지고 지난 이십일부터 서교정 예수교회 부속실에서 대성황리에 개학을하고 정회창대 김상돈(金相敦)씨로부터 의미심장한 취지설명이 잇섯스며 방금 연야계속하야 야학을하는바 정내 남녀청소년은 물밀듯 칠십여명이 출석하야 입학지원을하고 『아는것이힘 배와야산다』 하며 치운겨울임에도 원근을 불구하고매일 모여서 열심으로 배우는중이며 특별히 강사로 자진봉사하는 당정 유지청년인 (鄭道源)씨에게 춘종이만흐며 매일 낫에는 보명학교(普明學校)에서 교편을잡고 밤에는또이것 일을보는 김선환(金善煥)씨의 열심에 감사하며 더욱히 야학실과 난로를 빌여주는 서교정교회와 야학을 위하야 여러가지로 노력하는 정회에대하야 일반의 충중이 자자하다

傷痍軍人會의
朝鮮支部를結成
朝鮮內各團體를統制

상이(傷痍)군인의 상호친선과 정신의 도야를 목적으로 내지에서는 벌서쇼화십일년에 상이군인회라는것이 조직되여 여러가지로 활동하고잇슴에비최여 총독부에서는 종래에잇는 이런성질의 각단체를통일하여 이번에 새로히 ″대일본상이군인회조선지부″라는 단체를조직하기로 하엿는데 경기도에서는 이상과가튼 총독부의방침에쫏처 도내에잇는 각단체를통합해가지고 경기도 연맹지부를결성 각군부에는 군부분회를두기로되여 이십륙일 신곡(神谷)경기도 내무부장의 이름으로 관하각군에 통첩을발하고 상세히 지시하엿다

埋築場에또事故
仁川에서五名째慘死

【仁川】 매축장에서 또참사ㅡ인천부 송현정(松峴町)삼십오번지에현주 강대환(姜大煥)(三三)은 지난이십일오후 네시경에 송현정 일번지 매축장에서 채석작업을 하다가 흙이 문어저서 두부이하 하반신을 입어흔수상대에 빠지자 갓치 일하던인부가 발견코 즉시 부내목뢰(牧瀨)의원에 다려다가 응급수당을가하엿스나 출혈이심하야이십륙일 오전다섯시십분에 절명되엿다는데 작년봄에 시작한 매축공사장에서 발생한 참사가 다섯사람에 달하므로 인천서에서는 그사고방지책을 강구하야 현장감독을 독려하고잇다한다

燃料節約研究

【仁川】 인천공업구락부(仁川工業俱樂部)에서는 시국이 임의장기전에드러 가게되자 총후국민으로서 생업보국에 매진하기위하야 신년도에는 신규사업의하나로서 공장종업원 강습을 자조시켜서 생산력을 확충시키는 일방 시국하에잇서서 석탄의수입을 하으로 그지장이 적지안흠으로 연료절약연구회를 개최하고 연료부족의 대책을 연구키로되엿다

千七百萬圓巨額
昨年의開城貿易高
比前年三百六十萬圓增

【開城】 요지음 개성상공회의소에서 조정한 작년도 개성무역통계는 일천칠백이십구만륙백오십사원인데 이를전년도에 비하면 일약삼백륙십팔만 팔천칠백오십삼원이란 거대한 증가를보엿다 이것은물론 개성상계의비약적발전에도 그원인이 잇겟지만 첫재는모든물가가 폭등된때문에의한 자연증가인바 측년보다 이입(移入)액은 일백팔십오만륙천구백이원이 증가되엿고 이출(移出)액은 일백륙십구만삼천여원이 증가되엿다 그리고다음 수입(輸入)액에 잇서서도 십일만일천일십원이 늘엇고 수출(輸出)액에 잇서서도 칠천칠백원이 늘엇다 그리고작년과재작년도의 이출입액을 대조해보면 다음과갓다

	十三年度分	十二年度分
移入	[illegible]	[illegible]
移出	[illegible]	[illegible]
輸入	[illegible]	[illegible]
輸出	[illegible]	[illegible]

木炭消費廿萬俵
仁川府內에서記錄的使用量
金額으로四十餘萬圓

【仁川】 남개동치보란ㅡ사변이래 두해째 설을지나 이미장기건설에드러가게됨으로 공업도시로서의 각방으로 알게된이때에 석탄수입은에 대용품으로『왕겨』『나무』가 쓰이는이때에 작년중인천부내에서 사러진목탄이 이십만표(俵)가 재로된것이다 그것을 금액으로환산하면 매표에 지정가격으로 이원평균으로 사십만원이란거액이 재로사러젓는데 인천부 권업계의 통계로보면 관동주(關東州)와중국(中支那)에서도 작년중인천항에 주문된목탄이 입항되엿스며 매년사십만원어치의 목탄을 인천부내에서소비한것은 처기록을지엇다한다

地方人事

▲滿國彥氏(京城地方法院江華出張所長) 今般安城出張所로 榮轉 人事次本社 江華支局來訪

貨物을滿載한
江南丸顚覆
江華德城里近海에서

【江華】 지난이십이일 인천으로부터 연백군나진포(延白郡羅津浦)에 향하야 화물을만재하고 떠난 강남환(江南丸)은 요사히 유빙으로 인하야 오래동안 운항치못하얏든바 이날 덕성리(德城里)근해에 이르러서 선원의 부주의인지 별안간 암초에충돌되여 배는 전복되엿고 화물전부는 유실을당하얏스나 다행히 인명손해는 업섯다고한다

우술수업는世上

法律을모르므로해서
당치안흔悲劇을惹起

당연히 이길것을 법률을 모르므로해서 敗訴하여 울고잇는 사람도 적지안타 그中에도 第一 만흔것이 賃貸、家賃의 賃貸關係去來이고 賣買한것이 어음事件이다。 하지안흐면 버리지안흐면 아니되는世上一世上에는 한번그로되는 事件을이르킨 賃借關係는 往往이잇는故로 平素時에 法律을아러두어서 事件이이러나거든 곳應用하면 의외에便利하다 最近東京市杉並區下高井戶一ノ廿七東京書院에서『法學士高橋悠久著日常百般法律百科大寶典』이라는 難問題가 解決되는 알기쉬운法律書가 發表되엿는데 一般素人에게는 好외 辭典가된다 同書는 從來의 어려운 法律書와달러서 實際問題를 收錄한것으로 金錢의貸借는勿論 民法、商法、土地家屋、賃貸借、相續等의 難問題를 머리를쓰지안코 解決하는 至極便利한것으로 同書一冊만잇스면 辯護士도所用업는것이다 그리고 同書는頁四百四十頁의大冊으로 定價二圓인것을法律의民衆化라는意味로 特價一圓二十錢에特賣하고잇다 希望者는前記書院營業部에 葉書로申込하면곳送本하여준다 代金은着本拂—

글을살리는
書簡쓰는法

學校를卒業하고도 滿足한便紙를 쓰지못한다고하는 소문이다 書로서 곳잘듯는 手便紙가리는것도잇다 自己가生覺하고잇는것도 相對便에게 充分히表現치못하고 드디여誤解를 補充하며 누구에게나 곳所用되는 生覺지도안흔 창피를 당하는일이잇다 今般東京市杉並區下高井戶一ノ廿七 東京書院에서發行한 文學士落合先生著『實用新案手紙百科辭典』이란 冊은 이用途를 생각한대로 술술쓰게되는非常히貴重한冊으로 이冊만잇스면 남부끄럽지안흔 書簡文章家가되여 他人에게 便紙를 쓸때 도업고 곱내고 他人에게서도 써주게된다 內容은『交際文』『商業文』『暑中』『寒中』『病氣見舞文』『年賀』『祝賀』『弔慰文』『照會』『催促』『汗文』『依賴文』『男女交際文』『祝福手紙』『履歷書の書方』其他八十章에 亘하야 알기쉽게 一一히實例를드러써잇다 同書는 定價一圓七十錢인데 五百部限하야 겨우 一圓으로特賣하고잇다 東京書院에 葉書로申込하면 代金着本拂로急送할터이다

中學講義讓渡

國民中學全科講義錄 全學期12冊 合本代引一圓五十錢讓渡함니다 申込하시요 東京市杉並區下高井戶一ノ成田

珠算이서툴러서
他人압헤羞恥를當해

某大實業家의 面接에『일찍이 고쓰기 書翰해도 珠算이 서툴러서 採用하지안는일이 조종잇다』라고 事實珠算이 서투른것은社會의 分岐點이므로 一生의損失이아니라 他人에게생각지안흔 창피를 당하는일이잇다 東京杉並區下高井戶一ノ廿七東京書院에서 發賣된『速成熟達正しい珠算の覺え方』를보면 어떤素人이라도 곳일수잇게 珠算의初步부터加減乘除諸算數 求積 步合算等詳細한方法을記하여잇스므로 本書에依하야 戰時體制下의 規則잇는練習을하면안저서 甲種商業學校卒業程度의珠算이면 아무리어려운計算이라도至極히簡單하게 가장빠르고正確히計上된다고하야 商店會社銀行員으로부터 大歡迎을밧고잇다 同書는定價一圓八十錢인것을特價一圓으로 前記東京書院에서 葉書로 申込하면 代金은着本拂로送本한다

言語使用法

식장에서『이번은』을써야할 境遇에 누구든지 적당히버린다 友人의子息이 結婚을햇다 披露宴에 參列해달라고 招待를 맛는다 그러라고 應하야 當當한 禮服을채려입고 出席、자—인제新郎新婦에 雙方의兩親이나 親戚된사람에게 如何히 人事를 해야조흔가 모른다 그저누구보고나『慶事스럽소』라고만 되푸리한다면 自己의 無能을廣告하는 과가튼것으로 남에게웃거리가된다 新築祝賀나出產祝賀 入營入學 開店祝賀 火災나病問 四季人事凡節누구나 의례히 어려두어야할것이나 좀체로어려운것이다。 葬式이나 通夜하는人事에이르러서는 大槪가입속으로 우물우물해버리고 꾸벅꾸벅 人事를하고말려는모양이란 남이보기에숭하며 男子의羞恥이다. 그러타고 아무리正確하여도 이것만은禮法으로서 一定한型이잇는것이므로 알수업다. 이런것을 卽席에서解決하려면이번東京市杉並區下高井戶一ノ廿七 東京書院에서 發行한『바른말의使用法』이란冊을 利用하시요. 如何한 境遇에도 똑똑한人事를할수잇서서 果然分明한사람은다르다라고 적은일로도 사람들에게感心을밧게된다. 『正しい言葉の使ひ方』는 定價一圓五十錢인데 五百部限하야 우一圓으로 特賣하고잇다。 東京書院에 葉書로 申込하면代金着本拂로急送한다。

戰時의돈모으는것은時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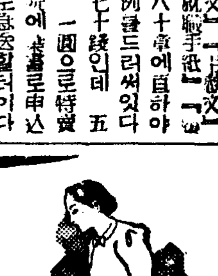
戰時統制下의 現下에돈을모으는것이나 財產增殖의길은 퍽困難한것이나 사람이 생각지안흔 곳에 蓄財의열쇠가잇는것이다。 戰時景氣에 安樂하게 잇슬때가아니다. 少少한資本으로 그利潤만으로 安樂하게 지낼수잇는 確實有望主義의 利殖法도 硏究해보면 얼마든지잇는것이다. 東京書院에서 發行한『돈모으는것』이란冊은 누구든지 實行할수잇는 利殖道의 秘訣을 實習하게쓴것으로 百數十章에나누어 여러種類의돈모으는法을 여러角度에서 그極意를 敍述하엿다。 殊나 價劵의利殖으로 失敗한분은반드시本書를 關讀하시라。 定價金貳圓五拾錢인것을 大割引特價金壹圓參拾錢 希望者는 東京市杉並區下高井戶一ノ東京書院에 葉書로『金儲けと財產增殖、利殖讀本』을送れ」라써서 申込하면代金은着本拂로送本한다。

雄辯의힘
公開된演說의秘訣

辯論의時代와다 公衆의面前에 自己의意見을發表하야 大衆의支持를밧고 實業家가 組合이나會社를經營하야 물스피-치를하는것이나 諸君이 卒業式入退營의 人事도 다雄辯이必要하게되엿다 그러케 自己의意見이나 發表하지못하고 해야만할境遇、人事도 변변히 못하는사람은 이生存競爭이 激甚한世上에서 웃사람이되는것은커녕 自己保存도 할수업다 雄辯家가되는것은 어려운가하면 어리가이 하나이上 누구나 鍛鍊만하면 明日부터라도 잘할수잇다 이번 東京市杉並區下高井戶一ノ廿七東京書院에서『雄辯術と演說の秘訣』이라는 冊子入二百十頁의指南書가 나왓는데 이사람이라도 工夫하면 어떤서투른사람이라도 탁 바에 雄辯家가된다。 어떤場所나 機會에도곳쓰이게되는 有名한式辭 人事 祝辭 弔祭의草稿가실려잇스므로 이것一冊만잇스면 決코어름거리지안코 언제나 拍手喝采는 保證하며、先着五百名限特價一圓으로 目下發賣中이니希望者는 早速註文하라 同社에서는代金은 着本拂로送付하여준다

바른簿記하는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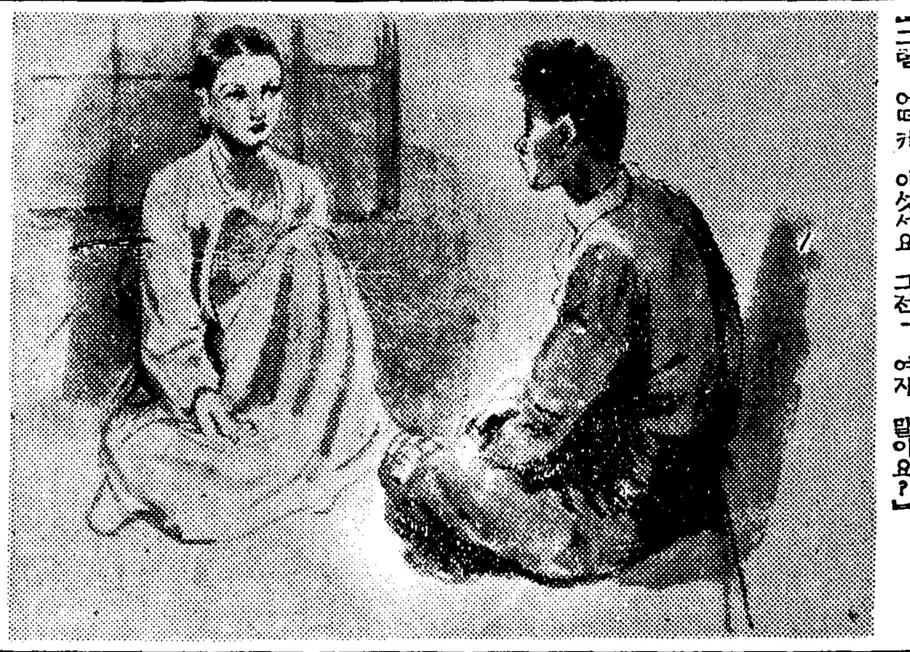
簿記하는法은 그러케 어려운것은아니다. 假令小學卒業한學力으로도 獨學으로 完全히 簿記하는法을알수잇다。 이번東京市杉並區下高井戶一ノ廿七 東京書院에서 發賣된(누구든지 알수잇는 商業簿記講義)라는冊은 그名稱과가티 바로 簿記를 배우는데는 最適의것으로부터 同書에는 商家人의心得 品仕入、賣上元帳仕分帳 日記帳의하는法과 決算法、棚卸시、貸借表의作法等 各各實例를示하야 詳細하게一一히 손을잡고가리키듯써노앗다 그리고 同書는定價一圓五十錢인것을 特히今回에限하야 特價一圓으로 頒布하는데 希望者는 葉書로 注文하면곳送本하며 代金은 後拂이되도조라하니 퍽 便利하다



長篇小說

薄命 (190)

韓雪野 作 鄭玄雄 畵



만보 一四

박은 차차 기퍼간다 순영이는 대철이게 대한입은 결성한바가 잇서서 더맙할것이 업다는드시 다른날을 못기 시작한다

『그런데 이집을 어떠케 아섯서요?』

이것은 이때까지 궁궁하던 일이엇다 며칠전까지 대철이가 그집으로 동냥을 갓슬때에는그집이 뉘집인지 목랏던 것인데 불과수일 동안에 어떠케 알고서 편지도하고 차저와는가하는 것이 처음부터 의심이 되엇스나 그사이에는 무를 틈이업섯던것이다

『아는수가 잇지오』

순영이의 모든 태도를 보고서 만족하게 생각하는 대철이는 빙그시 웃는다

『누구한테 무른것서요?』

『아니오』

『그럼 어떠케 아섯서요 그전부터 아섯슬수는 업구』

『그전부터야 어떠케 알수가잇나요』

『그러기에 말이야요 어떠케 아섯서요?』

『며칠전에 해태아페서 사직골쪽으로 가는길 모퉁이에 오신일이 잇섯지요?』

『거기를 갓던가? 거기 갓겻을 어떠케 아서요?』

순영이 얼굴은 붉어진나

『그때 거기는 무엇하러 가서 그러케 서 잇섯서요?』

대철이는 자기가 의심나던것을 뭇는다

『아니 어째 갓던지 그것을 어떠케 보섯서요?』

『그때에 나를 못보섯서요?』

『어떠케 볼수가 잇서요』

어른어른 하다가 대답하는 순영이는 기색이 자연 슬퍼지못해진다

『나는 그때에 당신인줄을 알엇서요 그때에 당신이 수건으로 얼굴을 반이나 가리고 잇섯지요?』

『그랫던가 모르지오 수건으로 얼굴을 가렷스면 어떠케 아섯서요?』

『순영씨가 얼굴을 반은 고사하고 왼통 가렷더라도 몰통이만 뵈인다면 몰통이 전부는 그만두고 어느 한부분만 뵈이대도 모를리가 잇나요 순영씨는 나의 전체를 보고서도 목라지만 나는 순영씨 발꿈치만 보아도 앎수가 잇지요』

대철이는 감개무량 한드시 얼굴비슬 고친다

『그때 보셧더라도 어떠케 집을 아섯서요?』

『그때 꼿 뒤를 따라왓지요』

대철이는 다시금 부끄러운 비슬 너온다

『예 그랫서요』

순영이는 그말에는 별로 흥미를 가지지 아니하고 조곰 잇다가

『그런데 그것은 참 어찌 되엿서요?』

하고 요령이 업시 뭇는다

『무엇이요?』

『지금 사시는 집은 어디야요?』

『집이 무슨 집이오 집이 잇스면 이러케 다닐리가 잇나요』

『그럼 살림은 어떠케 하서요?』

『살림이 무슨 살림이오』

『그럼 그여자는 어디잇서요?』

『그여자라니 그전에 말성되던 여자 말이요?』

『웨 새로 결혼한 여자 아니 잇서요?』

『자 그말은 우리 그단 둡시다 그말을 하느라면 당신도 듯기에 안됏슬게구 나도 병이 더질모양 이니까 그말은 입밧게 내지 안는것이 좁니다』

하고 한숨을 쉬다 순영이는 더 뭇지 아니하고 잇다가

『그럼 그 금낭은 어찌 되엇나요?』

하고 생각 나던것을 다 무럿다

『금낭이오』

하고 한참 안젓던 대철이는

『금낭은 그대로 잇지오』

하고 더 말하기를 징거하지 안는다 순영이도 거기에 무슨 기대를 가지고 무른것이 아니오 다만 궁금 하야서 뭇던것이라 구태여 더뭇지어니하얏다

演藝

新劇團誕生

『創作座』組織 第一回公演은四月

창작극상연을 목표로하는 새극단이생겨낫다 사무소를 시내종로오정목(鍾路五丁目)이백오십이번지에두고 극단일홈은 창작좌(創作座)라고하야 제일회공연으로는 사월중순 부민관에서박서민(朴曙民)작『두더쥐』와정영택(鄭英澤)작『바보』를 상연하리라고하는데 동좌의진영은 다음과갓다(사진은동좌의멤버ー)

經理 申德政
文藝 朴曙民 鄭英澤 余同純
演出 趙東述 朴曙民
美術 李春男
音樂 李 ?
演技
(男子)…崔錫鍋 尹北洋 金信基 申友珉 趙東昊 高昇熙 金大鈞 李海浪(賛助) 趙在鎬 洪南極 申白水
(女子)…權美卿 柳精芳 全三文 韓英順 權瑞秋 鄭漢順 吳世卿 宋華珠 趙연姬 朴慶淑 咸淳珍

라디오★프로

二十七日(金曜)

◇午前七時五〇分 皇居遙拜(第一放送에依함)
◇同七時五一分(東) 라디오體操(同)
◇同一〇時三〇分 氣象通報 料理製法『정어리프라이』日用品時勢
◇正午(東) 時報
◇午後零時五分 序曲集(레코ー드)
◇同零時三〇分 뉴ー스
◇同一時一五分 家庭時間『손쉬운家庭栄色이야기』 李興壽
◇同四時 뉴ー스 職業紹介
◇同六時 復習時間『算術』(六) 安興龍
◇同六時二五分 어린이新聞
◇同六時三〇分 講演 崔鍾鳳
◇同七時 뉴ー스 天氣豫報
◇同七時三〇分 西道歌謠 一、九明歌 二、배따리기 三、愁心歌 四、念佛 鄭錦紅 白牧丹
◇同八時 唱劇調 一、短歌咸平天地 二、唱劇調沈淸歌 伴奏 李秋月 韓成俊
◇同八時三〇分 日本音樂鑑賞(레코ー드)(解說付) 尺八獨奏(第一回) 一、虛空鈴慕 二、千鳥曲 三、正調追分
◇同九時 經濟解說『米價收穫豫想보고』朝鮮日報 李健赫
◇同九時三〇分 뉴ー스解說
◇同九時四〇分(東)時報 뉴ー스 氣象通報 明日曆 翌日順序
◇同一〇時 地方으로보내는뉴ー스
◇同一〇時一〇分 初步國語講座(六) 宋今璇

第一放送

◇午前七時一分 支那語講座
◇午後〇時五分 (大)合唱
◇同六時 (大)이야기
◇同六時二五分 (平)産業講座
◇同七時四〇分 (上海)
◇同八時 (東)管絃樂
◇同八時三〇分 (廣)俚謠
◇同八時四〇分 (大)리포ー트
◇同九時一〇分 (東)時事解說

二十八日(土曜)

◇午前七時五〇分 皇居遙拜(第一放送에依함)
◇同七時五一分 (東)라디오體操(同)
◇同一〇時三〇分 氣象通報 家庭메모 日用品市勢
◇正午 (東)時報
◇午後零時五分 (東)土曜콘서ー트 P・C・L管絃樂團
◇同零時三〇分 뉴ー스
◇同一時一五分 家庭時間『溫泉療法이야기』 金星煥
◇同四時 뉴ー스 職業紹介
◇同六時 라디오問答『사람의몸』(一)呼吸器官 解答 鄭潤鎔
◇同六時二五分 어린이新聞
◇同六時三〇分 復習時間『國語』六 市川榮三
◇同七時 뉴ー스 天氣豫報
◇同七時三〇分 講演『極東의猶太人』每日新報 柳光烈
◇同八時 歌謠曲
◇同八時三〇 古談『丹陽寃魂』 張志浩
◇同九時 南道歌謠 一、새打鈴 二、六字백이 三、興打鈴 四、개고리打鈴 趙錦玉 趙蘭玉
◇同九時三〇分 뉴ー스解說
◇同九時四〇分(東)時報 뉴ー스 氣象通報 明日曆 翌日順序
◇同一〇時 地方으로보내는뉴ー스
◇同一〇時一〇分 레코ー드音樂

第一放送

◇午前七時一分 基礎英語講座
◇午後零時五分(東)土曜콘서ー트
◇同六時 (東)歌舞伎
◇同六時二五分(東)講 演
◇同七時三〇分(東)座談會 永田秀次郎外
◇同八時二〇分(東)物 語 手帖
◇同八時四五分(東)라디오드라마 守田勘彌外

唱劇"春香傳"大公演

(獄中場面)

時…一月廿九日…二月二日
所…市內竹添町 東洋劇場
役 春香朴綠珠 道令丁南希 月梅林小香 香丹韓山月 房子吳太石 使徒趙相鮮 脚色 金容承 指揮 李東白 金昌龍
主催…朝鮮聲樂研究會
後援…朝鮮日報社事業部

美神淋藥

注射原液과 胃膓整劑配合

이건또稀貴한効果

新發見의淋藥

本藥은 世界的新發見의 優効治淋劑를輕하히 多量配合한 가장새로운 잘듯는治淋藥입니다

本藥을 內服하여 殺菌作用이 病患部의 深部까지 浸達하고 急速히 殺菌하야 小便과共히 體外로 씻처냅니다 아니라 炎症, 化膿을 防止하는 獨特한 治癒力에依하야 痛症이甚한 尿頻尿의急性도 服用하면 곳나서기 어려운慢性도 一、二日로 効力이잇스므로 그처럼 頑固한 淋疾에 大福音입니다.

胃膓에害가업는淋藥

아무리 잘듯는淋藥이라도 胃腸을害가잇서서는 玉에瑕입니다 美神淋藥은 아모리 服用해도 健胃整腸劑를 配合해잇스므로 絕對安心입니다.

効能 急性慢性淋病、消渴、尿道가다루고 攝護腺炎、睾丸炎、血尿、尿道痛、淋毒性子宮病

許文은 振替, 爲替, 代引어느거로나 지급곳申込해주시요

大阪市東區久寶寺町堺筋
本舖 宮內善進堂 振替大阪五七番

藥價 二週分 一週分 二四日分 三日 二五 五

美神丸

醫師가推奬하는婦人藥

無代進呈

帶下症 잇는분
冷症 月經不順 한분
經道히스테리ー
주름살과얼골거친분
流産早産不姙하는분
家庭生活不滿한분
淋菌梅毒感染한분
子宮卵巢가나뿐분

婦人科疾患으로 걱정하는분들은 美神丸으로 速히 나읍니다

朝鮮日報讀者에게내서 試驗藥보내드립니다 美神丸의 本說明書와 婦人病其他의 一通 主要書類를 一括 무료로보내니다 지금곳 申込해주시요 (切手無代料實費分)

冷症과不順한月經이 눈에뜨이게나엇습니다

芳村ふじ子氏

冷症과 月經不順은 腸藥이나 膣球로도낫는것으로 생각하엿스나 아므레도 시원치안어서 동모의 勸도잇서서 美神丸을이된 處澤으로 처음으로 病原도알고 根本的으로 治療되는것을 알엇스며停滯되엿든 汚物이 만히나와서 身心爽快、帶下도그치고 月經도 每月四日로定해젓습니다.

(岩手縣花巻町)

貴여운애기家庭圓滿

吉川文枝氏

몸의虛弱과 冷症이 더욱더婦人病惡化에 拍車를달려서 帶下子宮卵巢等에 繼續的으로더치는 數年間의 苦痛도美神丸이라는 나의病에 꼭맛는良藥을써서 以來 薄皮를 한겹식벗끼는것과가티 나어서애기까지나으니 一家圓滿

圓滿히 明朗케해주섯습니다 (大阪市三國町)

効能藉와가티 効果的確

若田ふじ子氏

前日보내주신藥 곳使用해습니다 처음은 不安을느겻스나三日째부터 만히나오고 一週日되는 아침엔 藥球도나오고 停滯되엿든 病毒이덩어리가 되여서 나오는때의 爽快한氣分、帶下도차차 적어지고 몸에서부터 따뜻하야 秘術全快의 念願이達成되려한니다

(新潟縣南魚沼郡五十澤村)

藥價 이처럼잘듯는本藥은 五週分一圓八十錢、十週分三圓五十錢、二十週分 六圓五十錢、振替、爲替、代引으로注文해주십시요

注文

大阪市東區久寶寺町堺筋
本舖 宮內善進堂
振替大阪五七番

속에서부터健康

곱고明朗

婦人病快癒!

一日五錢의 非常時 治療費

自宅에서秘密히이야말로安全

美와健康의절어지는體驗者와醫師가推奬

淺田飴 あさだあめ

冷해서는아니된다!

추운바람……찬空氣에 부다치면 反射的으로 皮膚의血管이 收縮하야 鼻、咽喉、氣管支가든 呼吸器、消化器의 障害가생겨서 感氣、喘息、胃膓病、子宮病가든것에걸린다 또 乳幼兒가든 皮膚의鍛鍊이 되지안흔兒童들은 百日咳 痲疹가든것을 誘發한다.

防寒의常備劑로서 淺田飴는最適!

淺田飴는 漢方大醫淺田宗伯先生이 宮中에 奉仕할때에 調進하신名方으로서 其主劑인朝鮮人蔘은 體力、精力이强壯劑로서 또는鹽溫劑로서 뛰여난 周知의貴藥이다。그리고 鎭咳、呼吸器劑로서 最强의高級藥을 配合한것이므로 이것을朝夕服用하면 體臟의末梢까지도 더워저서 前條의病도豫防하며 或은이것을 豫防하고 치우의 抵抗力을强하게하며、疲勞를回復하야 精力을增進하는데 特效가잇다.

(類似品有함淺田飴의名稱에注意)

適應症

痰咳一切 感氣・喘息 百日咳 肋膜炎 慰氣管支加答兒 病中病後 産前産後 一般虛弱症 老人小兒의補血强壯劑

固形淺田飴는 旅行、하이킹、스키ー、觀劇、事務、勉學等의 疲勞를恢復하며 精力을增加하고、講演、放送、聲樂가튼 一般高聲을發하는 때에 咽喉를푸키고 소리를조케한다。其他사람모힌中에서 使用하야 感氣咳、呼吸器疾患을 豫防하고咽喉를 保護한다

(全國各藥店에有함)

携帶至便 懷中容器入 金七十錢

價定 .30 .50 .70 1.00 2.00

携帶用 固形淺田飴

本舖 東京 大阪 門司 堀內伊太郞

꼿을비웃는레ー도의화장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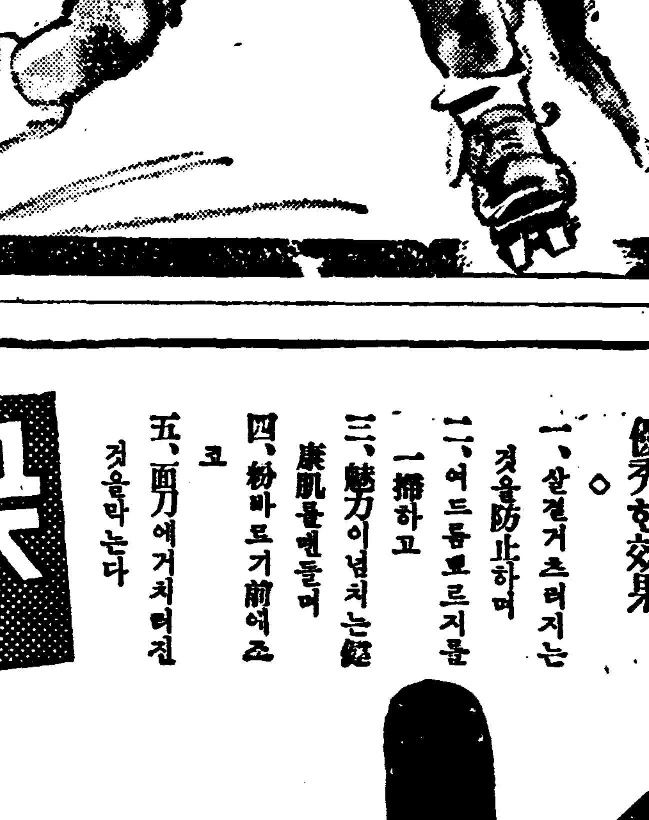
レートクレーム 레ー도크ー무

비단결가치곱고

생기잇는健康肌로!

레ー도크림의 優秀한効果

一、살결거츠러지는것을防止하며
二、어드름보르지를 一掃하고
三、魅力이넘치는健康肌를맨들며
四、粉바르기前에조코
五、面刀에거치러진것을막는다



新劇界의金字塔……豪華版……アトラクション……金姬座……娛樂의王者

金姬座 第一回大公演

27日부터(1프로三日間)

藝題 話 敗商 哀 失 菜 燈 爭 每 紅 毎 野

主幹 金斗 マネヂヤ 金主傳

H.A 드밴 鄭相玉 金判山 任楊一 白淸龍 申錫昶 李泰亨 吉聲波 朴美德 權五嬰 李光春 金華榮 李佛洪

歌手陣 劉良順 李芳園 金志媛 朴美德 李佛洪 崔 椿 吉聲波 姜寶金 崔 仙

無敵陣容 石臥佛 李 和 趙后童 金雲嬰 朴仁鳳 趙己石 康 豪 車 旭 金鐵山 卓 雲 李靑山 王 勳 金振門

女子部 無順 崔誠仙 柳仁愛 朴芳順 金鳳華 李京愛 劉椿順 金美姬 金良子 劉春順 柳京玉 張志汝 金寶媛 姜載金 盧 信 韓貞姬

團成社에서 午後六時부터 기야스타出演 오ー로ー